"무주공산 주인은 나"… 7명 출사표

완도군수

관료 출신 對 지역 풀뿌리 정치인 대결

7명중 6명 민주당… 공천 경쟁 치열 예고

김종식 현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무주공산'인 차기 완도군수 자리를 놓고 벌써 7명의 입지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관료 출신 대 지역 풀뿌리 정치인들과의 대결이 예상되며, 7명의 출마 예상자 중 6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한 장의 공천장을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료 출신으로는 김인철(62)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김홍배(63) 전 광주고검 사무국장, 박현호(63) 전 광양부시장, 신우철(60) 전 진도 부군수 등이 나서고 있다.

현재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역 정치인 출신 후보군으로는 김신(50) 전 군의원과 서정창(59) 전남도의원, 송주호(58)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이 있다.

후보 중 유일하게 '안철수 신당'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인철 자문위원은 20여년 간 국회에서 예산·행정·입법 활동을 해온 경험과 특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경험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중앙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인 등 중앙인맥을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할 기회를 달라"며 "해양수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휴양·레저·스포츠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김홍배 법무사는 민주당 전남도당 법률지원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정당 활동과 함께 지역민의 법률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그는 보건·복지분야의 다변화를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 국민테마관광휴양지 개발, 상권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박현호 전 부시장은 완도 부군수 등 5개 시·군 부단체장 경험을 한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군수와 맞붙어 2800표 차이로 패배를 경험한 그는 당시 조직과 인맥을 그대로 활용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생산안정과 판로확대, 광역교통 확충을 통한 잘사는 완도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신우철 전 진도부군수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과 완도·진도·고창 어촌지도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해양·수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바닥 민심을 다져가고 있다. 그는 35년간의 중앙과 지방의 행정경험 능력과 탄탄한 중앙정부 인맥을 갖고 있다는 게 최고의 강점이다. '청정과 친환경, 건강'을 토대로 수산·양식업을 중심으로 농업과 축산업의 연계발전을 꾀한다는게 핵심 전략이다.

김신 전 군의원은 전남 청년회의소(JC) 회장과 전남 서부 어류양식 협회장을 지낸 경력과 재선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지역 지킴이'로 검증받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3선 도전에 나선 김종식 군수와 맞붙어 패배했지만, 30%가 넘는 득표율을 얻으며 김 군수를 위협할 정도로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그는 "군민의 뜻을 받들고 정직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창조적 행정을 통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서정창 도의원은 도의원 재임기간 경로잔치와 효도관광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삼성복지재단 효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복지분야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 어촌계장 출신에 수산인이기도 한 송주호 부의장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수산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어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의장은 도의원을 지내며 완도 수산고 유치 지원과 전남 수산과학원 유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등 지역 공헌도가 높다는 평가다.

/최권일기자 cki@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완도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이름(나이)	**김신**(50)	**김인철**(62)	**김홍배**(63)	**박현호**(62)	**서정창**(59)	**송주호**(58)	**신우철**(60)
주요경력	· 완도군 야구협회 회장 · 전)완도군의원 (재선)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전)국회 수석 전문위원	· 법무사 · 전) 서울지검 사무국장	· 정당인 · 전)광양부시장	· 전남도의원 · 전)완도군 청년회장	· 전남도의원 ·전)마을 어촌계장	· 완도수산고 총동문회장 · 전)진도부군수

※ 후보는 가나다 순

■이슈&변수

현 군수 지지세력 누가 흡수 할지

일부 합종연횡·무소속 출마 예상

내년 완도군수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한 장의 후보 티켓을 누가 거머쥐느냐다.

7명의 출마예상자 중 6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은 본선 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 과정에서 일부 출마예상자끼리 '합종연횡'도 예상되며, 일부 입지자의 경우 경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가능성이 있어 자칫 '다자구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김신 전 군의원과 김홍배 법무사, 서정창 도의원이 완도군 내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완도읍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3선'인 김종식 군수의 조직과 지지세력을 어떤 후보가 흡수하느냐가 향후 선거전 변수로 꼽히고 있다.

공천 이후, 본 선거에선 당연히 민주당 군수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겠지만, 공천 과정에 김 군수의 조직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경선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영록 의원의 '입김'도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 쟁점으로는 3선의 김종식 군수가 추진한 사업들 중 아직 미완성인 지역현안 사업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를 놓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와 연륙·연도교 추진 등 지역 SOC 조기 추진도 후보들 간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현 군수 vs 신진 정치세력 박빙 승부

진도군수

섬 특성상 지지 후보 뚜렷 … 과열 양상

민주 對 安신당 구도, 4명 지지도 엇비슷

내년 진도군수 선거는 이동진 현 군수와 신진 정치 세력 간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과거 선거에서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는 등 진도는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곳이다. 또 섬 지역 특성상 지지 후보가 뚜렷해 과열 양상을 띠고 있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점쳐진다.

출마에 뜻을 둔 후보는 이동진 군수를 비롯해 김희수 전 진도군 환경녹지과장, 박연수 전 진도군수, 장일 전남도의회 의원 등 4명이다. 이 군수와 장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준비하고, 김 전 과장과 박 전 군수는 안철수 신당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4명의 후보가 팽팽한 세 대결을 펼치고 있어 무소속 출마도 속출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김희수 전 과장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군내면, 조도면, 지산면장을 거쳐 환경녹지과장을 지내며 쌓은 인맥이 가장 큰 무기다. 그동안 무소속으로 정치에 도전했지만 안철수 신당을 등에 업고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를 모두 진도에서 졸업해 동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지지 기반도 상당하다.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책을 토대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동진 군수는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거친 전문 경영인이며, 재임 기간 동안 낙후된 진도의 가치와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재선을 통해 "더 나은 진도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진도항 개발 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친환경 농수산물의 가공·판매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오지 생활로 지역 내 인지도가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수년 동안 지지 기반을 닦아 온 다른 출마자들과의 경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진도 군의원들의 지지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선거 과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연수 전 군수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는 박 전 군수는 고려조선산단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진도군 미래 종합 발전 계획 수립하고, 주요 국책사업 조속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또 진도항 2차 공사 추진, 서망항을 서남해안 어업 전진기지화 등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정책 선거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장일 도의원의 도전도 눈에 띈다. 2선 도의원 경험과 민주당 내 인맥이 풍부해 최근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진도 군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민주당 전남도당연수원장을 지내는 등 당내 입지도 탄탄해 민주당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 차례나 도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 등도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광록·박현영기자 kroh@

■ 진도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안철수 신당	안철수 신당	민주당	민주당
이름(나이)	**김희수**(59)	**박연수**(62)	**이동진**(68)	**장일**(56)
주요경력	· 내일 실행위원 · 전)진도군 환경녹지과장	· 전)진도군수	· 진도군수 · 전)전남개발공사 사장	· 전남도의회 의원

※ 후보는 가나다 순

■이슈&변수

공천 탈락 후보들 무소속 출마 관심

후보 도덕성 중요한 판단 기준될 듯

내년 진도군수 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와 신진 정치 세력의 선전 등이 가장 큰 변수다.

현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 4명의 지지도가 팽팽해 정당의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소속 도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공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동진 군수와 장일 전남도의회 의원은 상황이 불리하면 언제라도 무소속으로 선회할 수 있고, 안철수 신당의 내부 사정도 비슷하다. 김희수 전 진도군 환경녹지과장, 박연수 전 진도군수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 지지도에 비해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진도 특성상, 일부 후보는 안철수 신당 공천을 아예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진도 군수 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무소속 간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판의 세대 교체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진도 군수 선거 민주당 경선에 무려 9명이 참여하면서 '1차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당시, 경선에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정계에서 은퇴했고, 내년 선거를 통해 '2차 세대 교체'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지역 갈망도 뜨겁다. 과거 각종 비리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군수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는 여론도 많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도덕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도가 엇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끗한 이미지의 후보에게 부동층이 몰릴 수 있어 도덕성이 판세를 흔들어 놓을 가장 중요한 변수다.

/오광록·박현영기자 kroh@kwangju.co.kr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룸11개(1층 상가)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융 1억2천)
★전대 정문 1분★
◦룸18개(만실) ◦월수익 600만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융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월수익 850만 ◦매가 12억(융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1층 상가, 2층상가, 3층 룸 9개, 4층 룸9개
◦월수익 1300만 보3억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룸15개(주택1개)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룸15개 (만실)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융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찰용지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융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

해남 관리지역
(낮은 야산)
급 매
문내면 석교리
5300평
평당 3만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화원면 조선배후 단지 가능
밭,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태양광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